

참학력 기반으로 혁신교육 완성한다

도교육청, 혁신학교 15곳 재지정 종합평가 초 3교·중 7교·고 5교 현장방문 면담평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혁신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혁신학교 재지정을 위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15개교가 대상이다. 전주중앙초, 남원초, 회현중 등 2015년 지정된 혁신더하기 학교와 고창초,

부귀중, 이리남중, 군산대성중, 군산제일중, 장성여중, 변산서중, 고창고, 인월중고, 임실고, 양현고, 정읍고 등 2017년 지정된 혁신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평가기준은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수업혁신을 위한 노력, 민주적·개방적 학교문화, 학교자치·지역사회 협력 중심의 학교시스템, 혁신·학교 운영취지에 맞는 운영 등을

종합평가 하게 된다.

평가는 교육청에서 구성한 종합평가 평가위원회가 학교에서 사전 실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평가한 후,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면담 평가로 진행된다. 평가위원회는 혁신학교의 경험과 열정이 있는 교원 4인과 외부위원 2인 등 6인으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학교별 종합평가 결과표는 혁신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종합평가 결과는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정책 수립 기

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과정 혁신은 전북교육청 민선 3기 혁신학교 정책의 핵심인 만큼 참학력을 기반으로 혁신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자율학교 법령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종합평가는 재지정 여부 외에도 혁신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해 정책을 개선 보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교육과정 혁신을 중심으로 학교문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중국서 공연 이목 '집중'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은 지난 6월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국 강소성 일대에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중국인들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송하진 도시사와 전북도의회 대표단, 전북 전담 여행사 및 전주대 태권도화교는 전라북도 중국 강소성의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강소성을 방문해 전북 관광상품과 태권도 알리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캠프'가 열렸다.

이날 전주대 태권도시범단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전라북도와 강소성 자매결연 25주년 교류 한마당' 행사가 시작됐다. 전라북도 대표단은 중국인들에게 전라북도 문화의 우수성과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소개하고, 전주대 태권도시범단은 태권도 시범과 '싸울아비' 공연을 통해 중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전북대, 학생 시제품 개발 지원

전북대학교 산학연구본부 창업교육센터와 LINC+사업단,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2019년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캠프'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는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IT/ICT 기초 및 퍼지컴퓨팅디바이스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학생들은 실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구체화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번 캠프에서 약탈 교정을 위한 글씨체를 연습할 수 있는 '바른글 교정 스마트펜'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방성민 학생(전자공학부) 등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영유아 수면을 위한 디바이스 제품 아이디어를 낸 정시내 학생(IT응용시스템공학과)팀과 독학으로 기사를 배우는 입문자를 위한 레이저 즉석코딩 아이디어를 낸 오당찬 학생(목재응용공학과)팀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이 우수 아이디어 팀에게는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비 최대

500만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비 최대 1천만 원 등이 지원돼 아이디어를 사업화 가능한 아이템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방성민 학생(전자공학부 4학년)은 "이번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캠프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아이템이 최우수상을 받아 시제품제작지원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아이템을 구체화하여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신임 센터장 이영란 선임

전북스포츠과학센터가 신임 센터장에 이영란(49·여)씨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영란 신임 센터장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 센터장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에게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또 이 센터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

동 했고, 각종 연구논문을 등재하는 등 이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영란 센터장은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센터의 최신시설을 바탕으로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많은 선수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의사과학자 양성의 첫걸음

전북대, 융합형 '스타 전공'의 양성 나서

융합 교육·연구 지원... 대학병원 진료 업그레이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전북대병원(원장 조남천)과 함께 융합형 스타 전공의 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대가 고려대와 경희대, 영남대, 부산대, 키스트 등과 컨소시엄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되면서다.

이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임상 지식을 갖춘 의사를 대상으로 기초과학과 자연과학, 공학 등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 융합 연구가 가능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정부로부터 2억6천600만 원 가량을 지원받고 전북대병원은 대응투자를 통해 융합연구 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를 양성, 국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박사 학위 과정생 및 전공의들의 연구 지원과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전북대는 대학병원과 연계해 전공의들에게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 연구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여러 컨소시엄 대학과 기관과의 강

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인·물적 교류를 통해 교육 등의 다양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연구와 진료를 모두 잡히는 이른바 '스타 전공'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는 의대 학생들과 병원 전공의들에게 미래 의료계를 담보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과 연구 지원을 통해 추후 전북대병원의 진료 체계가 더욱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올해까지 컨소시엄 대학 및 기관들과 의사과학자 모집 및 과정을 시작하고, 내년까지 원격 교육 시스템과 융합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 원격 강의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과학자 양성 특수목적의 의학 대학원 전공과정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책임을 맡은 전북대 김중석 교수(의대)는 "이 사업 선정은 우리대학이 병원의 우수 의료 인력을 스타 전공의로 양성하는 첫 시작점"이라며, "의학과 타학문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의사과학자를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탁병주 교수, 대학 발전 기금 기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 탁병주 교수(수학교육과)가 대학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기탁식은 대학본부 2층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이 함께 참석해, 대학발전을 위한 기탁자의 뜻에 감사를 표했다.

지난 3월 임용된 탁병주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대학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탁을 결정하게 됐으며, 100만원을 대학에 전달했다.

특히, 탁병주 교수는 "작년에 경남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자와 현장의 소통이 교육의 발전과 개선에 매우 중요함을 느꼈다. 우리 대학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지역 최고의 교사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다"며 발전기금 기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대학교발전지원



재단은 발전기금을 대학 발전과 장학금,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수가 현장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총장은 "기탁의 뜻을 헤아려 학생, 교수들의 현장실습 및 지원과 같은 교류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
변산반카도

모항해수욕장

채석강	내소사
새만금홍보관	중포만갯벌생태공원
개암사	수성당
직소폭포	누에타운

2019
부안
파티워크
FESTIVAL

7월말 ~ 8월초
부안해수욕장 일원

7월말 ~ 9월초
부안 일원

부안군 관광안내 콜센터 : 063)581-5114, 063)584-2114